

## 보험 가입 때 유의해야 할 ‘보험나이’

만 나이서 6개월 경과하면 1세 증가  
“장기적으로 일원화하는 방안도 검토”

오는 6월 28일부터는 법령·계약상 연령 계산 기준이 ‘만(萬) 나이’로 통일된다. 하지만 보험상품 가입 때 연령 계산 기준은 만 나이와 별도로 ‘보험나이’를 적용하고 있다. 이에 금융감독원은 지난달 27일 금융소비자에게 다소 생소한 보험나이 개념과 유의사항을 안내했다.

만 나이 사용을 명시한 민법 일부개정안 및 행정기본법 일부개정안이 지난해 국회에서 통과됨에 따라 오는 6월 28일부터는 만 나이로 통일되면서 상황별 나이 계산법 혼용으로 발생했던 사회·행정적 혼선이 해소될 전망이다.

만 나이 셈법은 생일을 기준으로 두고 다음 해 생일을 맞이할 때 1세가 증가하는 방식이다. 우리나라는 민법상 만 나이를 표준으로 채택하고 있으며 각종 법률 또한 만 나이를 기준으로 적용 사항에 차이를 두고 있다.

그러나 생명보험처럼 사람의 생명·신체 관련 위험을 보장하는 보험상품(상법상 인보험 계약)에 가입할 경우 계약 사항에서는 만 나이와 다른 보험나이를 적용한다.

보험나이는 보험 계약일 당시 만 나이에서 6개월을 기준으로 변동한다. 즉 만 나이가 변동한 당일을 기준으로 해 6개월 이상이 지나면 보험나이는 1세 증가하고, 6개월 미만인 경우 보험나이는 그대로 유지된다. 이후 나이는 매년 해당 계약일(최초 계약일로부터 1년마다 돌아오는 날)마다 1세 증가하는 것으로 계산한다.

보험나이 계산 기준은 생명보험, 질병·상해보험(손해보험), 실손보험 표준약관에서 정하고 있다. 다만 법규에서 나이를 특정하거나 개별 약관에서 나이 기준을 별도로 정하는

경우에는 보험나이를 적용하지 않는다. 대표적인 사례로 ‘15세 미만자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한 보험계약은 무효’로 하는 상법 제732조가 있다.

금융감독원은 보험나이 활용 항목으로 ▲보험료 산출 ▲가입가능 여부 판단 ▲만기시점 확정 등을 소개하고, 보험가입 및 만기일자를 유의해야 하는 여러 상황을 안내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나이가 늘어날수록 질병·사고 발생확률이 높아지기 때문에 납입할 보험료도 점차 높게 책정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보험소비자는 보험 약관을 자세히 검토해 보험나이가 1세 증가하기 전에 해당 상품에 가입하는 것이 경제적으로 유리하다”고 말했다.

가입 나이에 제한이 있는 경우에는 보험나이 기준으로 하한연령에 도달한 직후부터 상한연령이 경과하기 직전까지 기간에 가입해야 한다. 어린이보험의 가입나이 제한 범위는 보험나이 기준 0~30세로 규정돼 있다. 어린이보험의 하한연령은 출생한 날 만 0세이며 상한연령은 만 30세 6개월이다. 따라서 어린이보험은 만 30세 6개월이 지나기 전까지만 가입이 가능하다.

나이를 기준으로 만기가 정해져 있다면 해당 만기일은 ‘만기로 표시된 보험나이에 도달하는 마지막 계약 해당일’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1983년 3월 1일 출생자가 보험나이 40세가 되는 2023년 1월 1일에 가입한 80세 만기 상품 만기일은 계약 해당일인 2063년 1월 1일이다. 출생일 기준으로 환산한 보험나이 80세의 마지막일(만 80세 6개월 전일)인 2063년 8월 31일이 아닌 것과 구분해야 한다.

보험상품 청약 시 나이를 잘못 기재한 경우, 보험계약을 해지하지 않더라도 나이를 정정할 수 있다. 그러나 정정 시점에서 보험료를 추가로 납입 또는 반환 금액이 발생할 가능성을 유의해야 한다. 보험나이로 40세이지만 청약 시 39세로 잘못 기재해 20년 시점에 나이를 정정하는 상황이라면 보험료를 추가로 납입해 계약을 유지하거나 별도 정산 없이 가입금을 감액하는 것도 가능하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금융소비자가 보험 가입 때 만 나이와 보험나이를 혼동해 불편을 겪지 않도록, 보험회사와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보험나이 개념이 약관 등 보험 기초서류에 더 명확하게 반영되고 소비자에게도 충분히 안내되도록 하겠다”며 “중장기적으로 보험나이를 만 나이로 일원화하는 방안도 필요시 검토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국보험신문=손민아 기자]

손민아 [alsdkgg@insnews.co.kr](mailto:alsdkgg@insnews.co.kr)

[저작권자 (c)한국보험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3-02-06 00:35:51 입력.